

CONTENTS

개회사 | **김춘동**_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6

인사말 | **임이자**_ 국회의원 (국민의힘) 8
윤건영_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10

축 사 | **우원식**_ 국회의장 12
안호영_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14
배준영_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16

발 제 | **권기정**_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 19

토 론 | **이완영**_ 제19,20대 국회의원, 전 대구지방노동청장 53
조병선_ 전 IBK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장, 전 독일 쾰른대 동문회장 63
권혁철_ 자유시장연구소장, 전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연구실장 67
백승주_ 제20대 국회의원, 현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회장 73
김춘동_ 현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장 77
김낙훈_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경글로벌강소기업연구원장 83





• 기념 사진전, 기록영화 상영

[1부] 식순 14:00~14:30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 회 사 **김춘동**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인 사 말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환 영 사
 기념 촬영

[2부] 정책세미나 14:30~16:00

• 주제 발표와 토론(14:30~15:50)

사 회 : **허범도** 제18대 국회의원, 전 산업자원부 차관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발 제 (14:30~14:5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황과 당면과제”
 -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
 토 론 (14:50~15:50)
 이완영 제19,20대 국회의원, 전 대구지방노동청장
 조병선 전 IBK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장, 전 독일 쾰른대 동문회장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전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연구실장
 백승주 제20대 국회의원, 현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회장
 김춘동 현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장
 김낙훈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경글로벌강소기업연구원장
 폐 회 (15:50~16:00)

개회사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김 춘 동**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김춘동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마나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국 각양 각지에서 정책 세미나를 위하여 참여하신 파독 회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심에도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축사까지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배준영 의원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님, 민주당 환경노동 위원장 안호영 의원님, 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그 밖에 많은 여야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자로 나오신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 권기정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반세기를 훨씬 뒤로한 이즘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여 주신 국민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를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에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는 세계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국가가 되었으며 그 결과 단군 이래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서?

그 시작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세계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었는지를 모르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60년의 역사와 세월의 뒤안길에서 노년의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계신 2만여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그 치열했던 격동의 세월은, 뼈저린 삶의 현장과 몸부림친 천미터 지하 막장속에서, 독일 전국에 흩어진 병원 현장에서 견디어 낸 마치 파편과도 같은 아픈 기억들을 진솔한 붓대로 싸매고 위로 받고 싶어서 감히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초석을 이룬 파독의 전사들에게..... 파독인의 업적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기념관, 기념탑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대에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으로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도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영웅들은 한 분 한 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가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작은 바램이 있다면 한강의 기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산 역사를 제대로 담은 파독근로자들의 기념관, 기념탑을 세워 자라나는 세대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하는 성실한 삶으로 위대한 오늘을 만들어 놓았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젊은 세대는 이를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끝으로 이번 정책세미나를 위해서 시종일관 협조 해 주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그리고 여야 여러 의원님과 이번 정책세미나 토론을 발제하신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 권기정 박사님과 토론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정책 세미나가 풍성하고 격조 높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고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김 춘 동**

인사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 이 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황과 당면과제’를 주제로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세미나)에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책세미나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윤건영 의원님과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허범도 전 국회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낯선 독일 땅으로 떠났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헌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7,936명의 광부와 11,057명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독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초기였기에 파견된 인력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국내 수출액의 2%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의 외화 송금과 독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은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놀라운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파독 근로자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도 쉬기 힘든 1000m 지하에서 검은 석탄을 캐고 젊음을 바친 파독 광부, 독일인이 꺼리던 노인 돌봄, 시체 닦기 등 병원에서 수많은 고생을 겪었던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시절, 타지에서 삶의 모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막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외화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며, 독일이란 낯선 나라에 한인 사회의 기틀을 닦은 것도 파독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공로에 비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 제정된 법률은 이들의 노고를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제공된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현재 상황과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정책세미나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 이 자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입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세미나를 위해 준비해주신 임이자 의원님과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발제와 토론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글뤽아우프(Glückauf).” 파독 광부들이 탄광에서 매일 외치던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행운을 빕니다’라는 뜻입니다. 지하 1000m 깊이의 갱도에서 오늘도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기원이자 격려였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청소와 간병 등 온갖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일부는 시체를 알코올로 닦거나 수의 입히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조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범적인 근무와 성실함으로 독일 사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성과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자신들의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송금액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01,530천 달러였습니다. 한때 국민 총생산(GNP)의 2%에 달했을 정도의 거금이었습니다.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을 이루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에 기여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대우가 부족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사망하였거나 생존자들도 고령이 되었습니다. 더 시간을 지체하면 최소한의 예우마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조속히 그들의 예우에 대한 개별적인 주거, 의료 및 생활지원금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역사로 영원히 기리도록 해야 합니다.

파독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고, 파독 근로자 기념탑을 건립함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끝까지 관심 갖고,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축사



국회의장 우원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먼저 「개발연대 독일 파견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현재와 당면과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해 준 한국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연합회와 세미나를 주관해 준 임이자 국회의원님, 윤건영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허범도 전 국회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님, 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이완영 전 국회의원님, 조병선 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님,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독일 파견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신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로를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에게 정부가 나서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내고,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분들의 공로를 언급하며,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살아 계신 분들마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외화 습득은 산업 발전 초기 한 톨의 외화도 아쉬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투자 자금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 확대 및 추가 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세미나 주최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어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발연대 독일 파견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현재와 당면과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회의장 우원식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재와 당면과제’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세미나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님, 임이자·윤건영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허범도 전 의원님, 발제를 준비해 주신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완영 전 의원님, 조병선 전 IBK기업은행 기업경제연구소장님,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근대화의 주역’,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님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문구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수준이 무르익지 않았던 시절, 파독 근로자의 송금과 독일의 자금 차관은 우리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외화가 모자랐던 당시 파독 근로자 3년간 국내 송금액이 국내 총 수출액의 2%에 달했다고 합니다. 파독 근로자들께서 보낸 외화로 산업단지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놓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독일 파견으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주역이셨던 파독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독 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0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거의 없고, 이렇다 할 기념 사업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역만리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 말로 다할 수 없었을 파독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감히 상상해봅니다. 조국발전을 위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다음 세대까지 기억되고 기념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파독 근로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고 또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는 주시는 말씀 귀하게 듣고,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축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존경하는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입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김춘동 제9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공동 주관해주신 임이자 의원님과 윤건영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시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여러분께 부르짖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해내셨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번영을 직접 이룩하셨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 독일에서 흘린 여러분의 까만 땀과 맞바꾼 외화가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10대 강국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그 빛을 갹아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서도 함께 애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언되는 방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여러분과 같은 세계 재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성심성의껏 기릴 수 있도록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재외동포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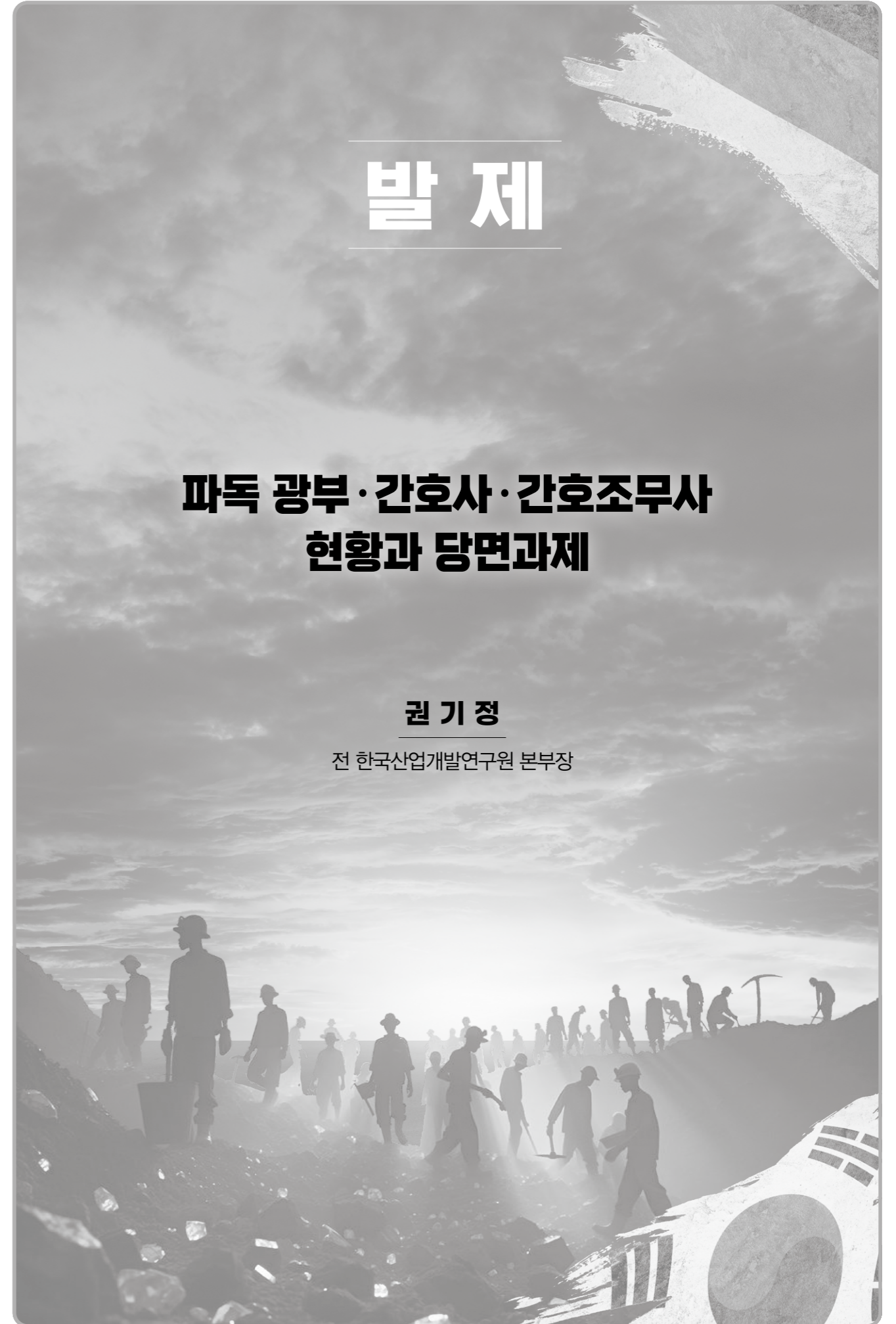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발 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현황과 당면과제

권 기 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



I. 파독 광부·간호요원 활동과 평가

1 파독 광부·간호요원의 파독 경과와 관련 법제

[광부·간호요원 파독 인원]

· 광부 파독

'63.12월 서독 파견 한국광부 임시고용계획이 체결됨에 따라 '63~'77년 간 총 7,936명의 광부를 독일에 파견
 * '63년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에서 광부파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독일파독광부선출위원회' 구성, '65년 (재)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간호사 파독

'62년 재독 한국 민간인의 개별 알선에 의해 간호사의 독일병원 취업이 시작되어 확대되었고 공식적으로는 '66~'76년 간 총 10,564명의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

연도별, 직종별 파독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광부	간호요원	비고
1963	247	247	1,043	생존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존여부, 거주지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1964	806	806		
1965	1,198	1,180		
1966	1,513	286	1,227	
1967	428	7	421	
1968	94	3	91	
1969	847	10	837	
1970	3,022	1,305	1,717	
1971	2,731	982	1,363	
1972	1,728	71	1,449	
1973	2,176	842	1,182	
1974	2,386	1,088	1,206	
1975	462	0	459	
1976	376	314	62	
1977	795	795	0	
계	18,993	7,936	11,057	

출처: 독일병원협회(생산연도 미상); 주독대사관, 업무현황, 1981.

주. 주독한국대사관 집계(1981)에는 1960년에서 1965년까지 18명의 간호요원이 파독되었다고 집계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수 파독되었음. 독일병원협회의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1,043명의 간호요원이 파독되었으므로 이 수치를 합산함.

[광부·간호요원 파독 주요 경과]

· 광부의 파독 주요 일지

- 1961. 3.18.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 1961. 4.14. 대한석탄공사와 서독 지멘스사 사이 루르 탄광에 한국 광부를 고용한다는 각서 교환
- 1961.12.13. 한·독간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교환
- 1962. 5.24. 서독 M.A.N.(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사, 주독 한국대사에게 한국인 근로자 500~1,000명 고용 의사 표명
- 1963. 1. 7. 한국 정부, 주서독 대사에게 인력진출 종합계획 추진을 지시
- 1963. 5.11. 독일 노동성, 광부 250명의 고용을 희망(3년간)
- 1963. 8. 9. 한국 정부, 서울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서독광부 모집 선발 지시
- 1963.12.16. 한국 광부 해외고용계획에 관한 한국정부와 서독탄광협회 사이에 체결(제1차 광부협정)
- 1963.12.21. 파독 광부 제1진 제1기 123명 출국
- 1963.12.21.~1966. 7.30. 제1차 광부 총 7진 2,521명 출국
- 1964. 6.10. 독일 측에서 3년간 총 2,000명 범위 내에서 광부 요청
- 1965. 1.29. 주독대사관과 독일탄광협회 간에 제2차 파견(2,000명) 합의
- 1965.10.26. 서독탄광협회, 11월 중에 140명의 광부를, 1966년 1, 2월에 400명의 광부를 고용할 수 있다고 외무부에 요청
- 1966. 4. 2,000명 서독파견계획 모집자 미파독 책임문제로 주독 노무관 소환
- 1969. 4.15. 함보른(Hamborn)광산 사장 TERHORST 일행, 한국 방문
- 1969.11.27. 제1차 광부협정 개정
- 1970. 1.21. 신광부협정 관계로 독일 연방노동성에서 한·독 정부 간 회의
- 1970. 2.18. 한·독 정부 간 제2차 광부파독을 위한 협정 체결
- 1970. 7.29. 한국해외개발공사 서독주재 사무소 설치
- 1970. 2.19.~1977.10.22. 제2차 광부 총 47진 5,415명 출국
- 1970. 5.22. 독일석탄광산에서의 한국 광부의 취업에 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 1973.11.23. 독일정부 외국 노동력 도입 중지 방침 발표
- 1978. 서독 정부 외국 신규 근로자 고용 전면 금지

· 간호요원의 파독 주요 일지

- 1957. 주한 독일인 신부 파비안 담(Fabian Damn)이 경북 김천(金泉)의 성의여자고등학교 졸업생 총 30명 선발 파독
- 1962~1967 재독 의과대생 이종수, 이수길 및 독일 종교 관계자 개별 주선으로 간호사 파독 이루어짐
- 1966. 3.18.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의해 간호사 128명 파독
- 1967. 7. 3 연방노동성 la 5-5752/5782호로 이종수가 관련된 한국기독교구제회에서 모집·주선하는 한국 간호요원 내독을 중단할 것을 주독한국대사관에 요청
- 1968.10. 3. 한·독 정부 간 “한국인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모집요강” 합의
- 1969. 8. 한·독 정부간 간호원 진출에 관한 협정 체결 (1974. 12. 31.만료)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서독병원협회 간 한국간호요원 파독협정체결에 합의
- 1969. 9.22. 연방노동성 4-24307-642/66호로 한국간호요원 독일 내 취업에 관한 건 통보와 동시 병원협회와 대사관과의 내독절차합의로 간호요원 내독
- 1970. 6.18. 서독병원협회 사무총장 Müller 박사 내한, 간호원 파독협의
- 1970. 6.26. 유자격 한국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독일 병원 취업에 관한 협정 에 관한 양해 각서체결
- 1970.12. 한국노동청 이승택 청장 독일 노동성과 협정문 날인
- 1971. 1. 협정서 발표
- 1971. 2.27.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간 유자격 한국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대독일 병원취업 계획에 대한 협정 서명
- 1971. 7.26. 양국정부 협정에 서명 완료
- 1973. 9.25. 보건사회부 간호요원 단체(5인 이상) 해외진출은 요원수급계획상 보건사회부에서 조정하기 위해 사전승인 요구
- 1974. 6.26. 한국간호요원 개별지명 초청 절차합의 (독일병원협회와 주독한국대사관 간)
- 1974.10.22. 협정 기간 무기한 연장 및 내용 보강(제2차 협정)
- 1974.10.29. 필리핀 간호원 내독 협정 완료
- 1975. 1. 1. 수정 또는 보강된 협정서 발효
- 1975. 7. 9. 독일 연방노동성은 협정국, 한국과 필리핀 이외의 비유럽계 간호요원의 서독 병원 취업금지 발표
- 1975. 8.14. 연방노동성 기혼자의 서독병원취업 및 내독금지 발표

[광부 · 간호요원 파독 관련 협정]

· 광부 파독

- '63.12.16. '한국 광부의 독일광산 임시 취업계획' 협정 체결
- * 협정 당사자: (한국)노동청, (독일)석탄광산협회(탄광협회)
- ※ 고용신분은 광산기술훈련교육생(고용기간 3년)으로 독일 취업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음

· 간호사 파독

- '69.8. '한·독 정부 사이에 간호원 진출에 관한 협정', '71.2.27. '유자격 한국 간호사·간호보조원 독일병원 취업에 관한 협정' 체결
- * 협정 당사자: (한국)한국해외개발공사, (독일)독일병원협회
- ※ 최초 고용기간은 3년(고용주에의해 연장가능), 독일 간호요원과 동등한 대우

[광부 · 간호요원 파독 관련 협정]

· 파독 광부간호사법을 국회에서 입법화¹⁾

- 발의 :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정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20대 국회의원 17인 발의, 2020.6.9.(법률 제17436호)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60년대에 체결된 의정서, 협정²⁾ 등에 근거
-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및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

1) 발의의원 (17인) 명단 :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찬우(자유한국당/朴贊佑),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2) 1961년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체결,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 1969년 체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

2 파독 광부·간호요원의 파독 목적

[실업을 감소를 통한 사회안정 이룩]

- 1960년대 초는 전후 경제활동인구가 배출되기 시작했으면서도 경제구조는 농업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실업인구**가 존재하였음.
 - 노동인구를 수용할 기업체가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실업은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정.

[외화가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 한국정부는 1960년대 광부·간호사 파독을 통해, 유희노동력을 해외에 송출(送出)함으로써, **국내 실업의 증압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술습득과 외화획득**이라는 목적도 이루고자 함.
 - 정부는 외화수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청 내부 자료인 해외인력진출사업계획에서 구체적 목표액까지 산출함.
 - 정부는 해외인력수출이 **사회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지대함**을 고려하여 중요정책으로 인식하고 '63년도부터 **인력수출 장려**.

서독 송금 산출내역 (단위: 천 달러)

구분	총계		1974년 진출		미진출		1인당 목표 송금액
	가득액	인원	가득액	인원	가득액	인원	
서독	29,970	11,100	8,370	3,100	21,600	8,000	\$450×1/2=\$225

출처: 노동청, 「74년도 해외인력진출사업계획」, 1974.

1965년~1975년 서독 진출 근로자 수 및 송금액 (단위: 천 달러)

구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합계
인원	2,251	1,520	428	94	847	3,022	2,731	1,728	2,120	2,416	910	18,067
금액	2,734	4,779	5,791	2,417	1,246	3,338	6,593	8,311	14,162	24,479	27,680	101,530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우호관계 유지]

- 한국 정부는 서독으로의 인력수출을 통해 외교적으로 서방 자유진영인 서독과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를 수립하길 원했음.

3 파독 근로자 지원의 성과 및 과제

[파독 근로자의 성과]

파독 근로자의 성과 종합

한국의 광부·간호사들이 독일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고국으로 송금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며, 독일에서의 경력 후 제3국으로 진출하여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

- **(파견인원)** 1960~70년대 한국의 **광부·간호사들은 파견근로자로 파독되었고,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광부의 경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936명**, 간호요원의 경우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총 **11,057명**이었음.
- **(송금액)**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낸 **송금액**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01,530천 달러로, 1965~1967년의 송금액의 경우 **총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이었음.
 - 이는 가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광부·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³⁾.
- **(재외한인사회 형성)** 파독 광부·간호사들 가운데 약 60%는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제3국으로 재이주하여 일부분이지만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
 - '19년 재외동포⁴⁾는 708만 명(북미 286, 유럽 65만 명)

3) 1961년 독일의 대(對) 한국 상업차관은 한독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의정서 (1961. 12. 13.)에 의거한 원조의 일종이었음. 이 상업차관은 대규모의 고액설비를 한국 업체에 연불수출하는 독일업체에 제공한 장기수출거래신용으로 사실은 독일의 Hermes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섰고, 독일부흥금융공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가 자금의 공여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4) 「재외동포재단법」 (2020.11.27. 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파독 근로자 성과 평가]

-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평가
 - 파독 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 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관계 증진효과를 거두었다고 확인.
- 2011년 1월 22일. **'파독근로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청원 추진위원회'**를 구성⁵⁾
 -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청
 -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 때 전달.
- 2013년 10월 23일. 파독근로자 국가적 예우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제1회의실)
 - 국회의원 119인이 “예우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 결의안 통과
-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동포 간담회(Frankfurt Hof)**
 - 간담회 직전 대통령 특별 면담 때, 파독근로자 건의문 전달
 - * 국가보훈처 : 국가적 예우 가능 (황선우 사무관)
 - * 국토교통부 :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가능(김지우 사무관)
- 2014년 12월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파독 50주년 기념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감사 송년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감사편지**를 파독 근로자들에게 전달.
 - 박근혜 대통령은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이역만리 독일로 간 것은 가난한 조국을 구하기 위한 헌신 이었고 조국근대화를 이루는 희망의 불씨였다”며 “국민소득 80달러의 가난한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과 경제대국으로 이끈 산업화의 주인공이자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형제자매로 국민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고 썼음.
- 2017년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 62회 현충일 추념사**,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 언급
 -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
 -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독일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고 언급.

5) 선정석 추진위원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룸

- 2017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호국보훈의 달' 청와대 오찬행사**
 - “나라를 위하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희망.
- 2017년 7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재독 동포 초청 간담회**(베를린 시 하얏트호텔)
 - “이역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강조.
 -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있었기에 조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달라진 조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 2020년 6월 10일.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법 제정**
 - 파독 약 60년, 지원법 요청한 지 약 15년 만에 법률로 제정.
 - 조국 근대화의 주역, 일등공신이라 말하지만, 치료비 지원 한 푼 없는 정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음.

[파독 근로자 의미와 당면과제]

- **(의미)** 파독 광부·간호사는 ‘삶에 도전하기’, ‘새로운 삶 꺼안기’, ‘삶에 의미 부여하기’ 등 **현대인에게 의미**가 되고 있음.
 - *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 관람객수 14,261,427명(국내 상업 영화 역대 4위)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삶의 도전하기)** 가부장제하에서 남성, 여성의 직업 진출이 어렵던 1960년대 해외진출의 기회를 선택한 청년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그들의 감정을 대표하였음.
 - **(새로운 삶 꺼안기)** 독일에 도착해 겪는 이(異)문화와 언어세계에 스스로를 노출하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의 마음과 함께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로움과 설움**’이 나타났음.
 - **(삶에 의미 부여하기)** 은퇴에 즈음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연령에서 지나온 삶의 큰 사건이었던 독일생활에 대한 의미를 부여.

- **(당면과제)** “독일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남해바다에 빠져버렸어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시급.
 - 60년대 청년들의 집단적 이주 형식을 띄게 되었던 독일파견이 국가에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이러한 측면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타남.
 - 파독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부정적인 면⁶⁾들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균형있게 다루어지길 원**하고 있음.
 -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한 연령대로서 노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고국으로 향하는 귀소본능과 더불어 안정적 삶과 건강이 고국에서도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 정부는 파독광부간호사법 제정 시행으로, **파독 근로자 소외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파독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자활(自活)을 위한 개입**을 적극 모색.

6) 떠돌던 소문(백영훈 박사의 책자) 또는 일부 언론, 심지어 국가기록원 포탈시스템에서조차 당시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하여 독일차관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2008)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

II. 광부·간호요원의 복지 및 협력

1. 파독 근로자 복지사업

1.1. 파독광부 적립금 개요

[적립금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 간 2차례의 파독광부 임시고용계획을 체결, ‘63~’77년 기간 동안 총 7,936명의 광부를 파독
- 파독광부는 서독탄광협회 산하 한국광부 특별회계에 연금보험 성격의 적립금을 불입, ‘광부적립금관리위원회(한독대표 각 3인)’에서 관리·운영

[미지급 잔액 발생]

- 동 특별회계에서 한국광부의 왕복여비, 장기요양 치료비, 항공보험료, 적립금관리위원회의 경비 등을 지출하고
 - 잔액은 본인에게 고용계약 종료(1차 1969.8, 2차 1980.11)전 가결산하여 지급, 고용계약 종료 약 1년 후 최종 결산하여 지급
- 그러나 차액규모가 작고 제3국 이주 등으로 인한 미청구자들의 미지급 적립금과 이자 발생, 누적

[적립금 이관 및 관리]

- ‘84. 12월 양국간 고용계약 종료로 우리 정부로 적립금 이관
 - 이관 시 적립금관리위원회 요청사항: 미청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고하여 계속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
 - ‘84.12 우리 정부 이관 시 수급권자 3,814명(가결산, 최종결산 미지급 별도 산정), 이관액 2,499,372 DM
- 독일 「광부적립금 관리위원회」로부터 적립금을 이관받은(‘84.12.20) 이후 개별 신청에 따라 적립금 지급
 - 소멸시효 만료(‘91.12.31) 후에도 자연채무로 보고 신청시 계속 지급해 옴

- '94년부터 소멸시효 만료 후 발생이자를 재원으로 독일 광부단체 복지사업을 지원('07년까지 약 14억 4천만 원/매년 약 1억원)

1.2. 파독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 배경]

- 적립금 이관 시 독일의 요청사항이었던 '적립금 개별 지급 후 잔액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에 의거, '97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복지사업 추진을 논의
 - 독일 파독광부 단체 간 통합 및 재단설립을 전제로 재독광부단체에 적립금의 전액 이관을 결정했으나, 단체 간 이견 존재 등으로 추진 담보
- 이후 복지사업에 대한 파독광부들의 염원과 노령화 상황을 감안, 관계부처 회의('07.7)를 통해 적립금 개별 지급을 종료하고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결정
 - 복지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예산 배정 및 사업 수탁]

- 적립금에 대한 개별 지급 신청을 '07.12.31까지 접수하여 지급 완료하고 미지급 잔액⁷⁾(약 18억원)을 국고로 귀속, 동 금액에 정부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총 21억원⁸⁾을 복지사업 예산으로 배정
- 각 파독광부 단체로부터 복지사업을 신청받아 파독광부복지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 사업수탁기관으로 '국제노동협력원'(현 노사발전재단) 선정
- (복지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희망사업 중 형평성(단체 활동내역·국가별 거주비율 등), 공익성(수혜 범위, 역사성), 현실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 **4개 국가 8개 단체에 18개 사업**을 선정

7) 관보 게재, 국내 일간지 및 해외 교민신문 광고, 주요 공관 홈페이지, 미지급자 개별 등기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립금 지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 지급 완료 후 최종적으로 1,346명에 대한 약 18억원의 미지급액 잔존

8) 파독광부 복지사업 위탁사업비(5032-304-210-15): 총 사업예산(21억) 중 운영사업비(1억원)를 제외한 순수 복지사업 예산은 20억원임

복지사업 선정결과

국 가	사업비 배정	세부내역
계	2,000백만원	
독일	1,116백만원	- 기념물 조성 532백만원 - 모국방문 306백만원 등 8개 사업
캐나다	368백만원	- 모국방문사업 188백만원 - 장학사업 88백만원 등 4개 사업
한국	342백만원	- 사랑방 개설 200백만원 - 다큐멘터리제작 102백만원 등 4개 사업
미국	174백만원	- 광부회고담 88백만원 - 회관구입 86백만원 등 2개 사업

2 파독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연합회의 설립

- 2006년~2007년 사단법인 추진 모임 발대식
- 2008년 발기인 총회 개최
- 2008년 9월 본 법인 설립 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음
- 2008년 10월 13일 서초동 법인체 사무실 확보
- 2009년 다큐멘터리 영화<고난의 벽을 넘어 기적의 라인강으로> 제작
- 2009년 <파독광부백서> 발간 및 기증
- 2009년 파독광부 다큐 영화기념 상영회 및 사진전 개최
- 2009년 인천이민사박물관 유물 수집 자료 협조
- 2009년 파독 47주년 기념 파독광부특별강연회 개최
- 2011년 1월 14일 국무총리, 광부 및 병원근로자 20여 명 초청
- 2011년 2월 8일 한독 대통령 만찬, 광부, 간호사 3명 초대
- 2011년 파독근로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 2011년 5월 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안) 신청
- 2011년 역사박물관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전시실 설치
- 2011년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교육부 역사 교과서 등재
- 2011년 12월 31일 국회 예결위원회 통과 25억원 배정
- 2012년 기념관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역사박물관 유물 전수
- 2012년 국내외 회원대상 유물 수집
- 2012년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광산과 병원 유물 기증 받음(기증 유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해독일마을 등에 매매하여 기념관 운영비 확보)

2012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영상물 준비와 세미나

2013년 5월 21일 파독근로자 기념관 개관식(노동부장관, 독일대사 등 참석)

3 법규 제정

• (지원 법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제정에 따라 2021년 6월 10일 시행으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파독광부간호사법, 2020. 6. 9.(법률 제17436호) 제정

- 파독광부간호사법을 시행령, 2021.5.18.제정, 2021.6.10.시행

• (지원 대상자)⁹⁾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정보 구체화 필요.

- 광부 :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 1961년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근거

 ▽ 1963년 12월 체결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근거

- 간호사·간호조무사 :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¹⁰⁾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 간 협정」근거

• (대상자 지원) 지원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우리나라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등을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하여 지원.

• (사업 및 활동)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①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②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③ 교육·홍보 및 학술 활동

④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⑤ 그 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9) 한독근로자채용협정(韓獨勤勞者採用協定, Anwerbe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üdkorea)

10) 1965년 10월 설립, 1975년 12월(한국해외개발공사법 제정), 1991년 4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III.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기본방향

1 지원 대상자 규모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법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 법률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통계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으로 총 18,993명이었음.

• 현재 대상자 수는 1960~70년대 총 파독 광부·간호사 수(18,993명)에서, 독일거주자(3,300명) 및 사망자(1,000명) 추정치를 차감한 14,693명으로 가정함¹¹⁾.

연도별, 직종별 파독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광부	간호요원	비고
1963	247	247	1,043	생존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존여부, 거주지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1964	806	806		
1965	1,198	1,180		
1966	1,513	286	1,227	
1967	428	7	421	
1968	94	3	91	
1969	847	10	837	
1970	3,022	1,305	1,717	
1971	2,731	982	1,363	
1972	1,728	71	1,449	
1973	2,176	842	1,182	
1974	2,386	1,088	1,206	
1975	462	0	459	
1976	376	314	62	
1977	795	795	0	
계	18,993	7,936	11,057	

출처: 독일병원협회(생산연도 미상); 주독대사관, 업무현황, 1981.

주. 주독한국대사관 집계(1981)에는 1960년에서 1965년까지 18명의 간호요원이 파독되었다고 집계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수 파독되었음. 독일병원협회의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1,043명의 간호요원이 파독되었으므로 이 수치를 합산함.

11) 독일 거주 근로자 수는 3,300명(외교부 추정), 사망자는 1,000명(한국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추정).

2 파독 근로자의 실태 조사¹²⁾

[파독 근로자의 경제 활동 및 건강 상태]

- 파독근로자의 개인소득은 2021년 현재 약 **1,356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개인소득은 2008년 700만 원, **2020년 1,558만 원**으로 계속 증가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노인의 소득 구성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이 향상을 보여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줌.
 -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0%, 2020년 36.9%로 증가하였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26.5%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0년 55.1%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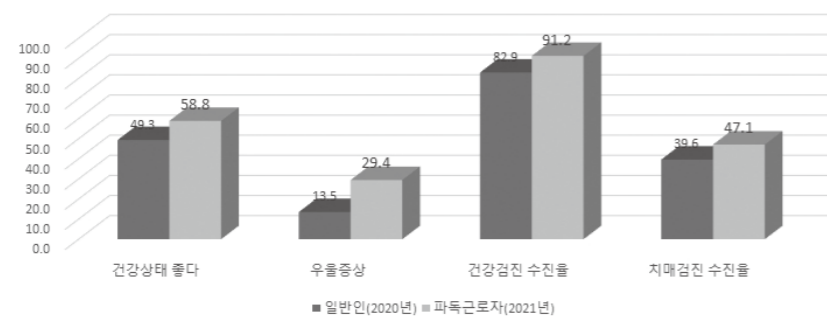
파독근로자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	노인 (2000년)	파독근로자 (2021년 조사)
개인소득(만원)	1,558.0	1,356.0
경제활동참여율(%)	36.9	26.5
65~69세 경제활동참여율(%)	55.1	

주 1. 노인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6월 발표자료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2. 파독근로자는 2021년 7월 약식 조사한 34명 전화 응답조사

-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일반 노인의 경우 49.3%로 나타나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58.8%**로 나타남.

파독근로자의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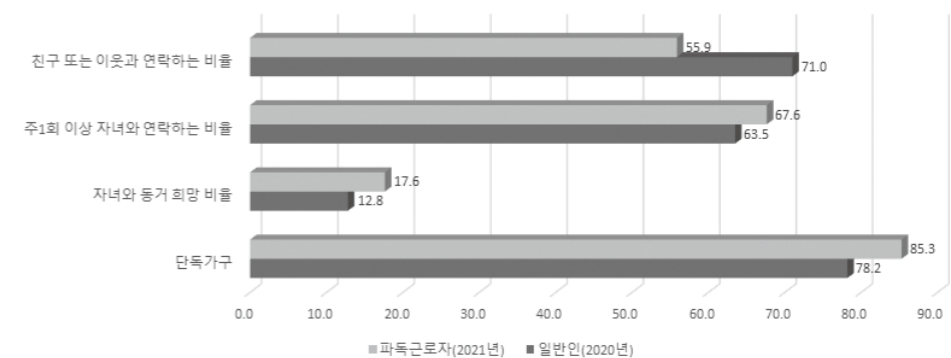
12) 2021년 6월 발표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와 파독근로자(34명) 실태조사를 통한 비교 자료

- 우울 증상**은 29.4%로 노인의 2020년 13.5%로 높아 파독 근로자들이 연령이 높아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검진 수진율**은 일반 노인 2020년 77%, 파독근로자의 경우 91.7%로, 일반 노인보다 높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매우 수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치매검진 수진율**은 일반 노인의 2020년 39.6%과 비슷한 42.1%로 나타났지만,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파독 근로자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독거가구, 부부가구 등 **노인 단독가구**는 2020년 78.2%로 증가 추세인 반면, 자녀와 동거 가구는 감소하였지만, **파독근로자인 경우 85.3%로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음**.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노인인 경우 12.8%, 파독근로자 17.6%로 낮은 수준에 있지만, 향후 단독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 1회 이상 자녀와 연락하는 비율**은 노인의 경우 2020년 63.5%로 감소하고 있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67.6%로 다소 높은 수준임. 반면, 가까운 친구 또는 이웃과 연락하는 비율은 노인의 경우 2020년 71%로 증가하고 있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55.9%에 머물러 낮은 수준에 있음.
 - 파독근로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일반 노인보다는 좁지만,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파독 근로자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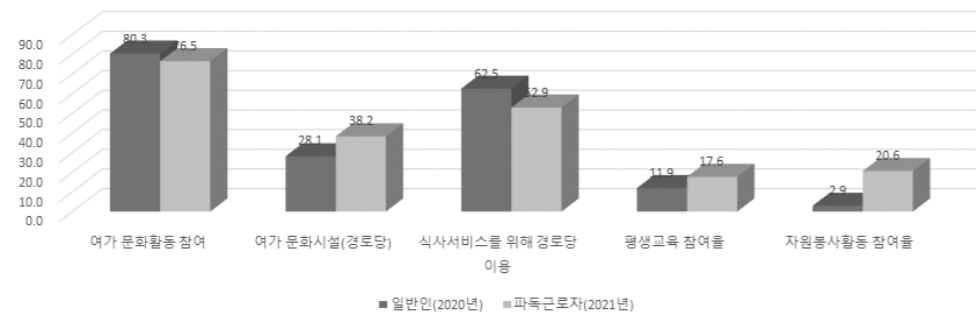
[파독 근로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 노인의 80.3%, **파독근로자의 76.5%**는 여가·문화활동을 참여하고 있었으며,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등으로 나타났음.

-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이지만, 파독근로자는 38.2%로 높은 상태임.
- 식사 서비스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노인인 경우 2020년 62.5%로 나타났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52.9%로 이 보다 낮아 식사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 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활동에 사용하고 있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17.6%를 평균 13시간 이상을 학습활동에 사용하고 있음.
- 노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20.6%로, 현재의 삶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파독 근로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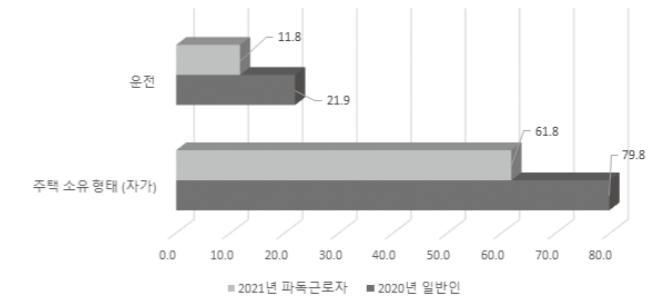
구분	일반인 (2000년)	파독근로자 (2021년)
여가 문화활동 참여	80.3	76.5
여가 문화시설(경로당)	28.1	38.2
식사서비스를 위해 경로당 이용	62.5	52.9
평생교육 참여율	11.9	17.6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2.9	20.6



[파독근로자의 생활환경과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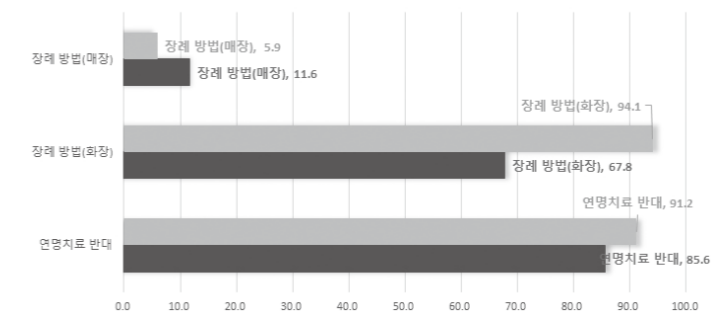
- 일반 노인이 거주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79.8%로 높지만, 파독 근로자는 61.8%로 일반 노인 보다 낮은 소유 상태를 보임.
- 파독 근로자는 건강할 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며,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인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함.
- 운전을 하는 일반 노인이 2020년 21.9%이지만, 파독근로자도 11.8%로 나타나 대부분은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

파독근로자의 생활환경



- 노인의 85.6%, 파독근로자의 91.4%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였고, 희망하는 장례 방법은 일반 노인 화장 67.8%, 매장 11.6%이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 화장 94.1%, 매장 5.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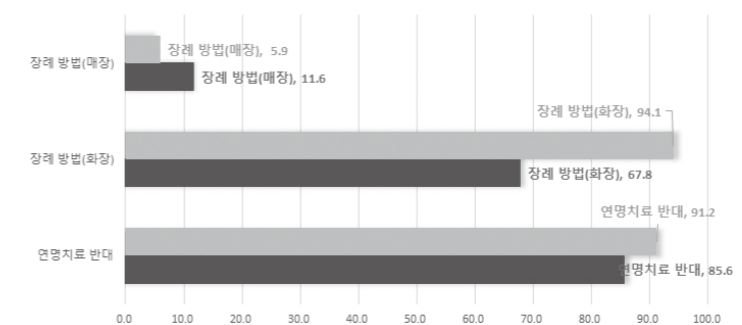
파독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파독근로자의 삶의 만족도]

- 일반 노인의 49.6%가 삶의 전반에 걸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독근로자의 경우는 44.1%로 일반 노인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남.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일반 노인 50.5%, 파독근로자 38.2%
- 경제 상태 만족도 : 일반 노인 37.4%, 파독 근로자 29.4%

파독근로자의 삶의 만족도



[파독 근로자의 실태조사 종합]

- 파독 근로자에 대한 간단한 **전화 실태조사**는 파독 근로자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 파독근로자 34명의 의견을 조사, 향후 표본수를 확대 조사 필요
- 정부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독 근로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파독근로자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와 안전이 연계된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을 추진
 -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등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을 지향하는 파독 근로자들의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을 살린 **일상적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파독근로자 일자리 창출 필요**

3 지원의 기본방향

- 파독근로자의 지원 원칙은 복지, 의료, 주거 등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

파독근로자 지원의 원칙

1. 지원 정책의 복지, 의료, 주거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2. 파독근로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추진
3. 소득·일자리, 주거,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지원 추진**
4.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
5. **지역 사회 보호**의 원칙 준수
6. 지원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
 - * 단체 지원 시설 → 지역 지원 시설 → 주거 지원

- 소득, 주거, 의료 등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생계 지원), 국토교통부(주거 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 지원)등 부처 차원 협력으로 지원
- **근로자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건강상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파독근로자에게 건강회복 지원
- 다양한 **주체(지자체, 민간단체 등)를 통한 유기적 서비스** 제공
 - 파독근로자 지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간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역사회 보호**의 원칙
 - 지역 사회와 파독근로자와의 연계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상호 간 영향력 확대
- **기존 복지, 의료, 주거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
 - 통합적 서비스 보다는 주거 기능과 파독근로자 욕구에 맞춘 필수적 서비스 제공

IV. 파독 근로자 지원 당면과제

1 비전 및 목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구조

비전 → 지원 서비스와 기념사업을 통한 파독 정신 계승

목표 →

- 자활·자립까지의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 주거·의료·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현황·실태조사를 통한 생활중심의 지원사업 체계화
- 기념관·기념공원 등 기념사업 추진

추진 전략

1. 자조(自助)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쓰려는 정신
2. 자립(自立)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서려는 정신
3. 자주(自主)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는 정신

지원 아젠다 Agenda

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 생계지원 대책 강화 • 주거지원 사업 강화 • 기타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관 건립 • 기념공원 조성 • 기념탑 건립 • 기념추모공원 사업 • 기타 기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실태조사 •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 전시, 교육 • 파독역사 조사 연구 • 근로자 상담 교육

2 추진 방향

-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역 인프라 확대
- ◎ 파독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사회서비스 담당 인력 확충 등 역량 강화 추진
- ◎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추진

• **(계획의 목적)** 파독근로자 홀대(忽待)에서 파독광부·간호사법 2021년 6월 10일 시행함에 따라, 국가에서 기념탑, 기념공원 건립 등으로 기념하고, 파독근로자에게 소득·일자리, 주거, 의료 등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다양한 경로(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하여, 파독근로자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에 소중한 유산으로 기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계획의 체계)** 분절적(分節的)·사후(事後) 문제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파독 근로자 지원을 체계화
 - 파독근로자 지원 종합계획(안) 수립을 통하여 향후 5년간 파독근로자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공유
 - 예산, 인력, 조직 등 **소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

• 파독 근로자 지원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중앙기관의 장(다부처 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지원**
 - 이를 위하여 사단법인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지원함.

• **(계획의 내용)** 법령에 명시한, 파독 근로자 기념사업 등은 기념관 건립 및 각종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 교육 홍보 및 학술 활동 사업,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이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 : 사람에게 지원]

- 파독 근로자 지원법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파독 근로자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1. 우리나라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우리나라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간호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지원 대상사업 : 사업으로 지원]

- 위와 같은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의 보조할 수 있음.

기념사업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V. 지원 분야별 당면과제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1. 파독 근로자 사회서비스 지원 정보 체계 구축

[현황]

- 사회서비스는 '파독 근로자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이지만, 현재 파독근로자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이거나, 원스톱 등으로 지원받는 체계 없음.**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분	내용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파독 근로자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기능	파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목적	파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추진 계획]

• 파독근로자 사회서비스 정보체계 구축의 특징

-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
- 파독 근로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되는 서비스

• 파독근로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보체계 구축 필요성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전략적 대응
 - * 인구구조 변화, 가족기능 약화,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으로 파독 근로자에 대한 돌봄, 간병, 재활 등 전통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충족 가능
-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사회서비스는 타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
 - * 파독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복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 교란 없는 고용 창출
 - * 사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고령자)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은 편

• 파독근로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보체계 구축

- (정보체계 구축 계획)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관리 하며,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 (정보체계 구축 운영) 고용노동부 체계 구축 또는 비용 지원을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으로 통해 실현

2. 의료비 일부 지원

[현황]

- 파독 근로자의 경우 광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리에 의한 청각손실, 호흡기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월남 파병에 따른 고엽제 등과 비교할 수 있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추진 계획]

- (지원 계획) 의료수당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60%를 국가가 지원함**.
 - 의료수당은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의료수당을 진료비(약제비 포함)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함.
- (비용 추계) 대상자 수에 의료비 지원 단가를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 총 18,993명에서 독일거주자 및 사망자 추정치를 차감한 14,693명 대상자 모두 의료비 지원을 신청
 - 의료비 지원단가 : 파독 광부·간호사의 평균연령이 74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1인당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후, 국가지원율(감면요율) 60%를 곱하여 산출
 - *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가지원율은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지원율과 동일한 60%를 적용

파독 광부·간호사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 총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2025	2025	2026	2027	비고
의료수당(원안 제7조)	12,031	12,790	13,597	

주: 추계치는 파독 광부·간호사 중 기존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의료급여)을 포함

3. 생활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수여

[현황]

- 저소득 파독 근로자의 국내 거주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추진 계획]

- **(비용 추계)** 대상자 수에 생활수당 지원 금액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 14,693명, 1인당 연간 267만원(월 22.28만원)
 - 예산 소요 : 연간 약 32억원
 - 파독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① 생활조정수당 지급, ②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③ 교육수당, ④ 요양수당 등을 고려한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

2024년 기준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금액 10%	222,845	368,261	471,466	572,991	669,574	761,837
" 20%	445,689	736,522	942,931	1,145,983	1,339,147	1,523,674
"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출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자료 : 보건복지부

4. 공공임대주택 및 노임복지주택 지원

[현황]

- 우리나라 노인의 단독가구는 2020년 78.2%로 증가 추세인 반면, 파독근로자인 경우 85.3%로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음. 그럼에도 주택 소유는 50%이하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음.
- 파독 근로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일정한 소득 수준이하의 무주택 파독근로자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무주택 파독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지원되며, 공급되는 평형은 14~20평형임.

[추진계획]

- 현재 파독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공급규모별로 원소득 기준이 70%~100% 이하
 - * 월평균 가구소득 70%
- (자산기준)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총자산가액이 2.8억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이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자가진단” 이용, 주거복지정책 수혜가능 확인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콜센터 1600-1004)

-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 신청 : (가칭)파독근로자지원센터, LH청약센터
 - 온라인 신청 지원, 방문 지원

- 지원 범위 : 무주택자 약 14.7% × 약 3,000만원 (5년간 단계별)

2 기념 사업에 대한 지원

1. 기념관 건립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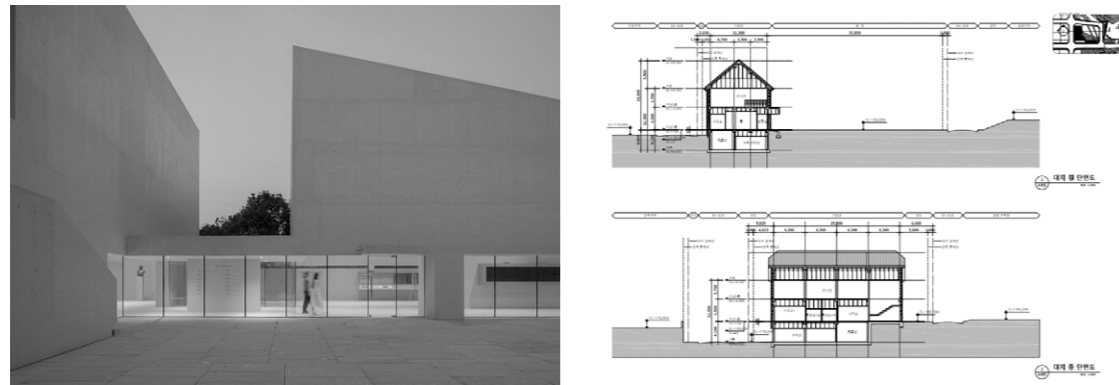
[현황]

- 기념사업 중 기념관 건립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파독근로자 기념관”**(2013.5.21. 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42-5
 - 고용노동부는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시설 개보수 및 운영 유지비를 투입 및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
- 현재 기념관은 지리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공간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기념 유적 유물을 수장 및 전시 등을 할 수 없어 관람객의 방문 부족.

[추진계획]

- 국비 일부 지원을 통한 지자체와 연합회가 **기념관 부지 선정 후 건축** 계획.
 - 위치 : 지자체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 **기념관 부지면적** : 3,300㎡
 - **기념관 연면적** : 990㎡
 - 주차장 : 자체 주차장(6대) 및 주차장(중형 25대, 대형 2대)

기념관 및 건축설계도 예시(안)



2.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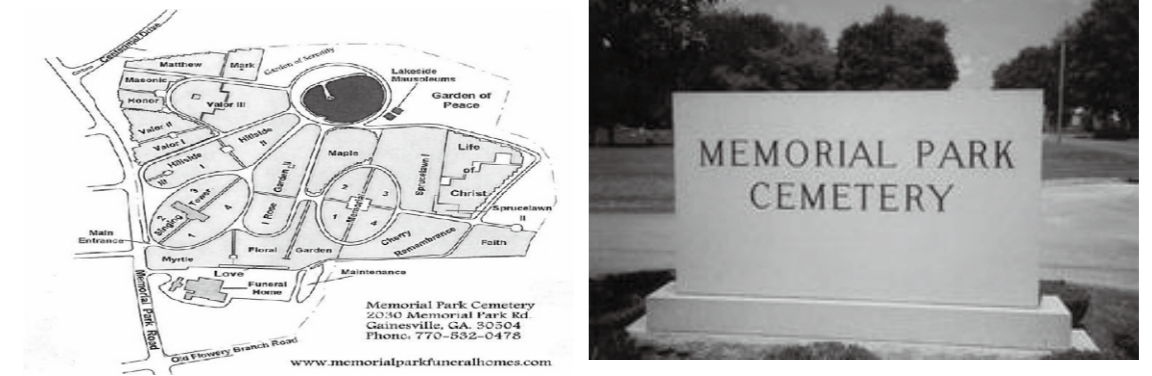
[현황]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추진비를 지원받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 부지를 결정**하고, **국비, 지방비와 성금모금, 자체자금** 등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
 - 기념공원 결정 지자체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는 **기념공원 내 기념탑, 추모벽, 와비석** 등의 마련
 - 연합회는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이라는 ‘파독 근로자 정신적 사업’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례로 추진

[추진계획]

- 파독 근로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과 함께 기리고, 750만 재외동포에게는 **파독의 혼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며 국민들께는 편안한 휴식공간과 역사적 명소가 될** 파독근로자 기념공원 구성
- 주요시설물
 - 60주년 기념탑 : 6개의 기둥으로 구성, 각 기둥은 10년을 의미하고, 광부, 간호사의 고난과 시련, 희생을 상징하는 형상
 - 추모벽 : 18,993명의 파독근로자의 명패를 모두 각인
 - * 명패석은 기왓장 상징 등 전통문양 형상화
 - 와비석 : 유명 시인의 ‘시’ 명각
 - * 파독근로자 기념공원 건립 취지 명각

기념공원 배치도 및 와비석 (예시)



3. 기념사업 비용 지원

[현황]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법에서는 ❶ 기념사업으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❷ **교육·홍보 및 학술 활동**, ❸ **국제교류**, ❹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그리고 ❺ 그 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 파독 근로자 문화유적 조사, 파독 근로자 유물 특별전 등
 - 역사적 자료 조사 연구 : 파독근로자 생활문화 자료조사, 파독 근로자 기획연구, 연구논문집 발간, 독일 자료 조사 및 학술총서 발간, 서울역사자료실 운영
 - 국제교류 : 청소년 국제교류,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 국내외 공동 조사 : 독일 현지 조사 용역
 - 교육·홍보 및 학술 활동 : 교재 편성, 홍보, 세미나, 콘퍼런스

[추진계획]

- 기념사업에 대한 전시, 조사연구, 교류, 교육홍보 등 위탁연구지원

기념사업 사업비 소요예산 : 2021~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비고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150	200	300	
조사 연구, 공동조사	150	200	300	
국제교류, 교육·홍보 학술활동	100	100	100	

- (기념사업비용 추정) 기념사업비는 위 예산을 지원하되 '민주화기념사업회' 기준 총인건비 대비 비중 78.5%를 고려하여 지원.

기념사업 사업비 소요예산 : 2021~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비고
인건비	503	520	538	8명
사업비(78.5%)	394	408	422	
국제교류, 교육·홍보 학술활동	897	928	960	

주: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음

4. 기념추모공원사업 지원

[현황]

- 우리나라는 납골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종교시설의 납골당 활용 방안을 모색중
- 파독 근로자의 시급한 장묘 대책에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저렴한 장묘시설 공급으로 편익** 제공
 - 파독 근로자의 추모사업도 혐오사업이 아닌 서비스업 인식
- **장묘문화 선진화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 新장묘문화(火葬)의 정부정책 부응지원 방법

[추진계획]

- 추모공원은 기념공원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 전체의 녹지화와 공원화**에 유의하며, 무엇보다도 **파독근로자의 문화거점**이라는 형식의 이미지 조성이 긴요함.
 - 추진은 연합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자의 선정은 재단법인으로 구성하거나, 재단법인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 사업성 분석의 결과를 참조하여 **공모조건**을 작성해야 할 것임

파독근로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구분	내용
위 치	파독근로자 기념공원내(예정)
면 적	00,000m ² - 납골시설 : 2만위(벽식납골묘 1만위, 수목장 1만위 고려) - 부대시설 : 관리동, 주차장, 편의점, 문화관, 전망대 등 - 공원녹지 : 조각공원, 연못, 산책로, 휴양림 등
사 업 비	00억원(공사 90%, 보상 등 기타 10%)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
시 행 자	(사)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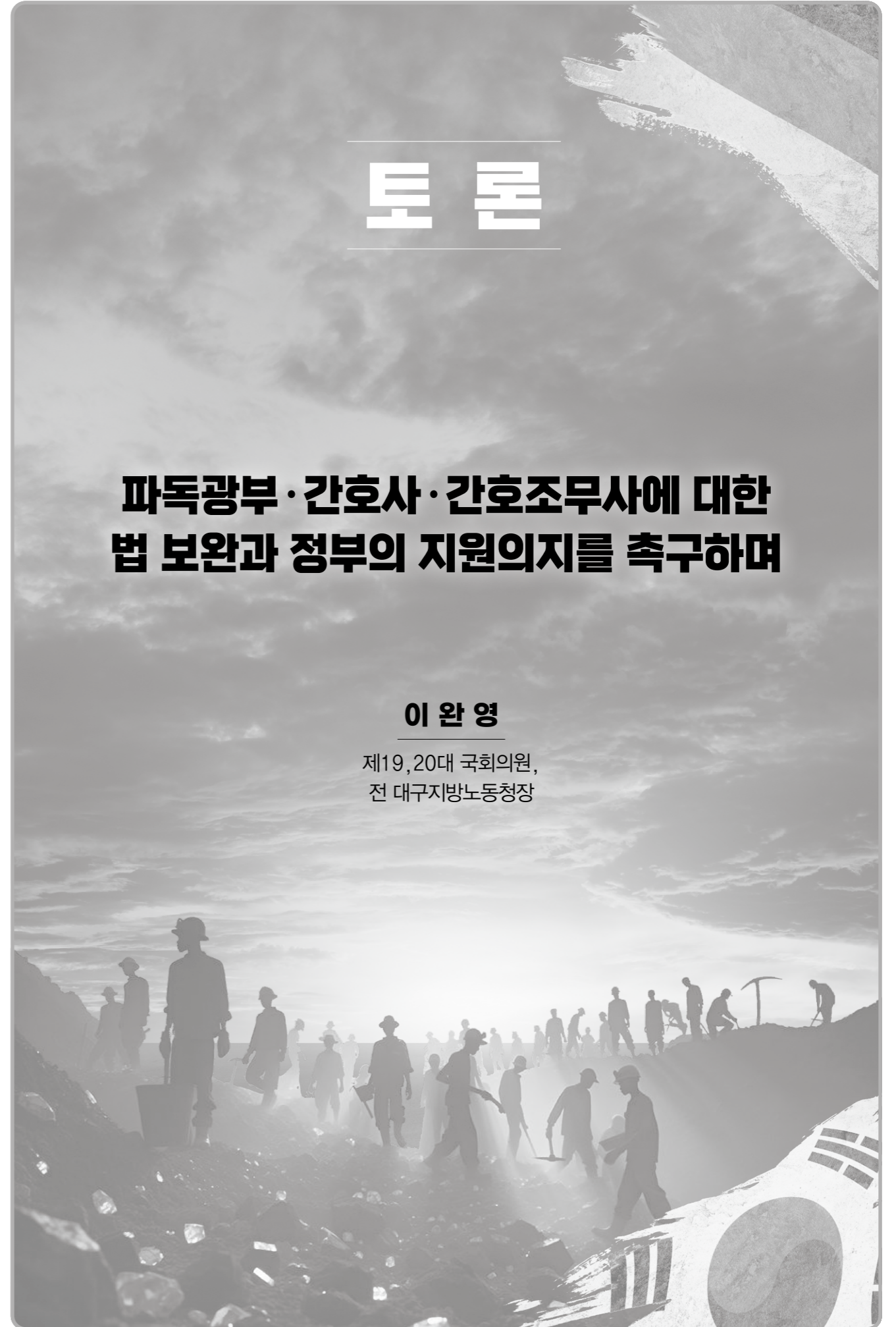
- 추모공원은 경상직원과 외주업체를 이용한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함.

토론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법 보완과 정부의 지원의지를 촉구하며

이완영

제19,20대 국회의원,
전 대구지방노동청장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법 보완과 정부의 지원의지를 촉구하며

이 완 영 | 19대, 20대 국회의원

1. 대한민국에서 파독근로자의 의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이하 파독근로자로 칭한다)의 시작과 과정, 이들의 노동이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오늘날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물질적 풍요에 사로잡혀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현실은 이들에 대한 인정이나 평가에 매우 인색하다

1)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다

파독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됐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1,057명이 파독근로자들이 파견됐다.

이 같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2) 백영훈 박사를 기억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분이 백영훈 박사이다. 백박사는 당시 독일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정부의 뜻을 독일 정부에 전달하고 독일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차관 도입까지 성공리에 마무리 한다.

3) 자본이 없는 한국, 종자돈을 마련하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극빈한 대한민국에게 어느 나라도 차관을 줄 나라가 없었지만 독일은 파독 근로자가 있었기에 차관을 제공해 경제 개발의 종자돈으로 사용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파독 광부·간호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기인 1963년 1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광부 123명이 최초로 서독 땅을 밟았고 간호사 파견은 1966년부터 시작됐다. 파독 광부로 파견된 인원은 8968명, 간호사는 1만 2천여명으로 총 2만 1천여명이다. 당시 이들의 송금액은 연간 5000만 달러로, 대한민국 GNP(국민총생산)의 2%대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4) 한강의 기적

당시 서독은 1961년 3월 기술원조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 12월 '한·독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공공과 상업차관 합계 1억 5000만 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 달러 상당)의 유상원조를 제공하였다,

광부 파독 협상은 1963년에 있던 이후 1964년 차관협정에 의한 1억 5900만 마르크를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의 원천이 되었다. 이역만리 땅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피땀으로 조국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5) 대한민국 국민의 인재강국의 브랜드를 만든다.

광부는 지하 1000m 갱도에서 숨도 쉬기 힘든 환경에서 검은 석탄을 캐고, 간호사는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 하는 노인 케어, 시체 닦기 등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독일에 파견된 이들이 근면과 성실로 일해 독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이런 피땀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인재라고 알려졌고 우리는 자긍심이 생기게 되었다.

6) 파독근로자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파독 근로자들의 노동현장과 삶을 들어보면 눈물없이 들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보면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이들에 대해 무슨 예우를 했는가?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든지 3년이 지나도 정부는 무슨일을 했고 어떤 진척을 보였는가?

2. 법 제정의 의미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고용노동부 출신, 자유한국당)은 2017년 11월 24일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2020년 6월 9일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파독근로자법'이라 칭한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독일에 파견된 지 57년만에 힘들게 이들에 대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쾌거를 이루었다. 법 부칙에 의거 1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 국민들이 파독 광부·간호사들 지원을 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고 싶다.

1) 파독근로자들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다.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합회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단체는 임의단체에 불과했고 법 시행이후부터는 법으로 정한 파독근로자들의 단체가 되어 법적지위를 갖고 활동하게 되었고, 이들 구성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이 인정한 근로자들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

2) 파독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

파독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제정법에 나열되어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기념관 건립 및 각종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그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파독근로자 단체에 대해 기념사업등을 추진할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었다

3. 향후 과제

법제정 내용이 파독근로자들을 진정성있게 예우하는데는 턱없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대표발의할 때의 내용이 많이 삭제되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할 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이후 통과를 위해 애쓰는 중 문재인 정부때라 민주당과 정부에서 많은 이견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이법을 만들면 중동파견근로자에 대한 법도 만들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법제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지원 내용도 과도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주었다. 파독근로자만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되어 법제정에 난색을 표한 의원들이 있었으나, 연합회 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 다행이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일단 법제정을 해야한다는 절실함으로 법이 제정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다. 앞으로 법 개정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주거, 의료, 생활지원금을 포함해야

파독근로자 중 국내에 귀국해 거주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독일이나 타국에서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절실하다. 2만 1천여명의 파독근로자 중 사망한 분을 제외하고 국내에는 2/3 정도가 거주 중이고, 나머지 1/3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법을 개정하여 파독근로자에 대한 주거,의료,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도 되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

즉 국내 귀국 파독근로자는 생활정도, 거주정도 등을 조사해 일정수준이하의 대상에게는 의료와 생활지원금은 물론 주거지도 살만하게 할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

독일과 타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재외공관을 통해 파독근로자 신고를 받아 귀국의사, 외국에서의 삶의 수준을 조사해서 지원하고 귀국희망자에게는 주거지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파독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도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는다

개별적으로 집을 지원하는 것보다 다수 인원이 살아가면서 독일에서의 삶과 추억을 나누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집단 거주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 파독근로자의 날(12월 21일)을 제정해야

파독 광부가 독일에 첫발을 디딘 1963년 12월 21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21일을 '파독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후손들에게 “소중한 역사로 영원히 기리도록 해야 한다”

이 날을 제정 필요서는 파독근로자들을 위함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임을 자자손손 알려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설 수 있도록 교훈과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흘린 땀방울로, 이들이 외화를 벌어들인 덕분임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의미이다.

이것이 극심한 가난으로 보릿고개를 보내던 한국경제의 저력이 됐으며,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됐던 것을 상기함이다.

파독근로자들은 지난해 10월 4일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그 전날 파독근로자복지재단 주최로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50여명과 국내에 거주하는 100여명이 파독 60주년 행사를 갖었다.대통령의 이런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고 그 의미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독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길이 유일하다

3) 법에 정한 기념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법에 담긴 기념사업으로는 ▲기념관 건립 및 각종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그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3년이나 지금 정부는 어떠한 기념사업과 이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는지 묻고싶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며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음을 다시 상기하며 이들을 위해 정부 당국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4) 파독근로자 기념탑을 건립하자.

법에 정한대로 파독근로자기념관을 새로이 건립하고 기념탑을 만들어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원동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자.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서 찾아가기 좋고 알리기 쉬운 지역을 선정해서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한강의 기적을 기리는 기념탑까지 만들면 에펠탑보다 더 의미있고 외국에서 방문하 고픈 관광자원으로 만들자 파독근로자기념관이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2013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골목길에 4층짜리 주택을 매입한 후 개조해 파독근로자기념관이 세워졌다. 기념관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전시관이 있고, 2층은 세미나실, 3층은 사무실, 4층은 파독근로자들의 모임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주차공간도 없는 데다 지하철역과 거리도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는 이도 거의 없다.

이런 초라한 기념관은 부끄럽고 우리 경제수준에서 자존심이 상한다.

5) 후손들에게 당부

연령을 불문하고 파독근로자에 대해 잊지 않아야 하고 고생하신 파독 광부·간호사들에게 살아 계시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이분들 모두가 고인이 된 후라도 이분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파독근로자들의 업적과 땀방울이 소중한 역사로 남아 대한민국 융성의 기초가 되었음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기고]

파독 광부·간호사가 이룬 업적을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독일인도 감동할 정도로 일해
파독 광부·간호사들, °한강의 기적을 이뤄



지난 6월 6일 독일 서부 에센의 파독 광부 기념회관에서 '파독 광부 6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 파독 광부들과 한국·독일 측 내빈, 교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광부 파독의 역사는 1963년 1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광부 123명은 최초로 서독 땅을 밟았고 정부의 간호사 파견은 1966년부터며, 이후 1977년까지 7936명이 서독 광산으로, 간호요원 1만 1057명은 병원으로 파견됐다.

파독 근로자들의 노동현장과 삶을 들여보면 눈물없이 들을 수 없다.

광부는 지하 1000m 갱도에서 숨도 쉬기 힘든 환경에서 검은 석탄을 캐고, 간호사는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인 케어, 시체 닦기 등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이었다.

당시 최빈곤국인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니 독일에 광부 일을 한다고 하니 대졸자들도 응시할 정도이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시절 타지에서의 삶은 모두에게 고난이었다.

막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외화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며, 독일이란 낯선 나라에 한인 사회의 기틀을 닦은 것도 파독 세대였다.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독일인도 감동할 정도로 일해 필자는 독일 원조와 파독 근로자를 직접 독일에서 도운 백영훈 박사를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 누구보다 파독 근로자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당시 서독은 1961년 3월 기술원조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 12월 '한·독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공공과 상업차관 합계 1억 5000만 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 달러 상당)의 유상원조를 제공하였다.

광부 파독 협상은 1963년에 있던 이후 1964년 차관협정에 의한 1억 5900만 마르크를 받았다.

1963년 5월에 공식적으로 서독 노동부 차원의 유치 의사가 전달되면서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독 광부·간호사들, °한강의 기적을 이뤄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파독 광부·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잊을수 없는 역사이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극빈한 대한민국에게 어느 나라도 차관을 줄 나라가 없었지만 독일은 파독 근로자가 있었기에 차관을 제공해 경제 개발에 종자돈으로 사용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는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들이 근면과 성실로 일해 독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 국민은 잊지 않아야 하고 고생하신 파독 광부·간호사들에게 살아 계시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소망은 조국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진 것이 관련법 제정이다.

20대 국회에서 필자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여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2020. 6. 9., 제정되어 최초로 파독 근로자들이 법적 지위를 얻었고 이들을 위한 지원과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작 이 법이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법이 시행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우리 국민들이 파독 광부·간호사들 지원을 위한 법이 있는지를 아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근원이었음을 후손들이 알았으면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관련법에 의거 파독 근로자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노후에 삶을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 이들을 기리는 기념탑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데 한국에 집도 절도 없어 오지 못하는 딱
한 처지에 있다.
정부는 사할린 동포를 고국에서 살도록 한 경험대로 이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한국에 살도록 하
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며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음을 다시 상기하며 이들을 위해 정부 당국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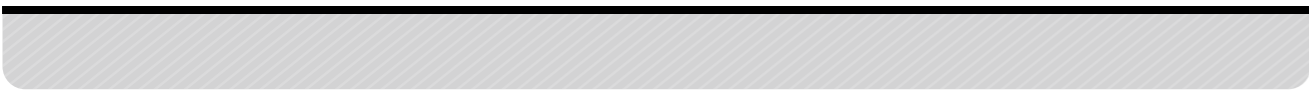
전 19·20대 국회의원 **이완영**

토론

제목

조병선

전 기업은행경제연구소장,
전 독일 쾰른대 동문회장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on page 64.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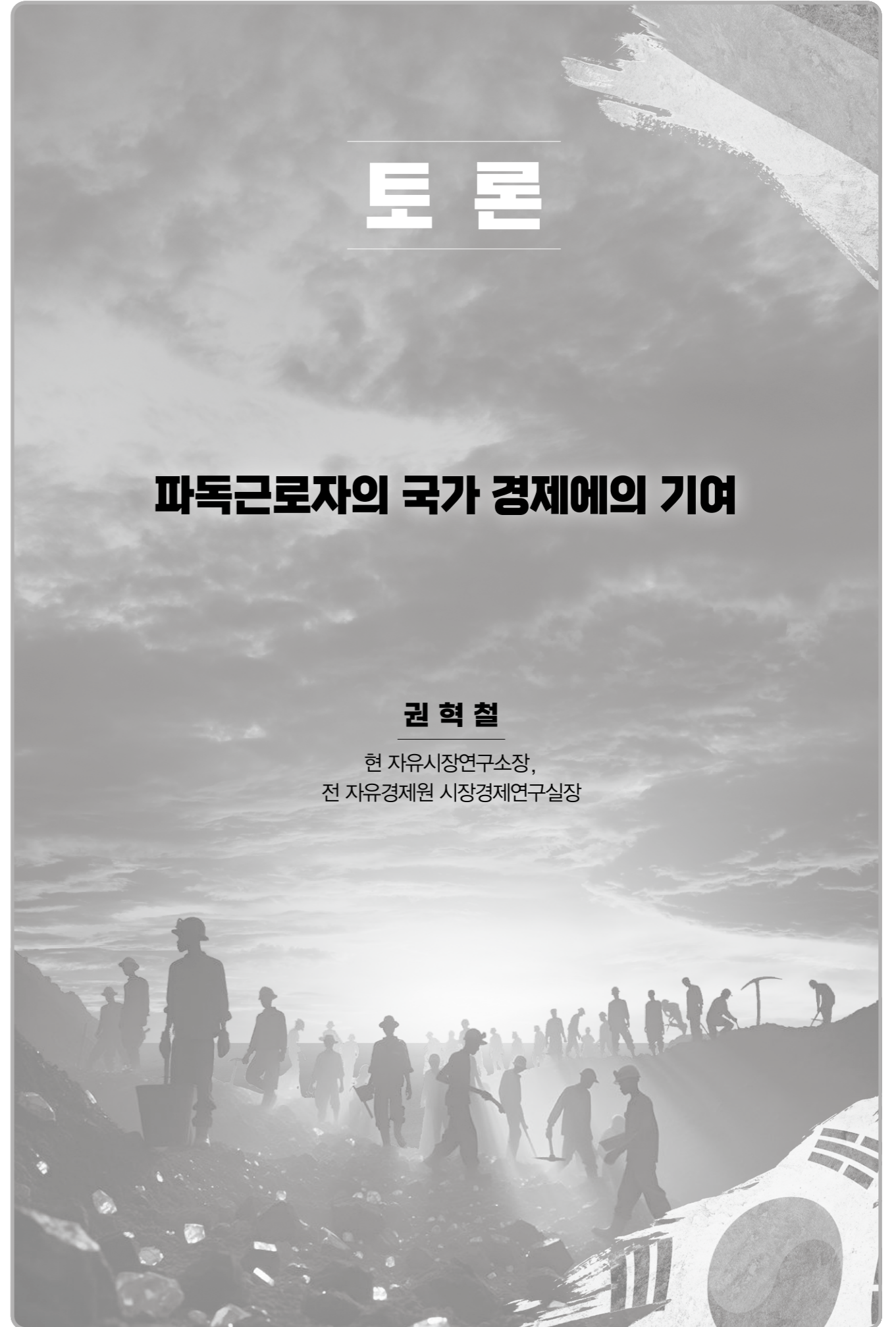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on page 65.

토론

파독근로자의 국가 경제에의 기여

권혁철

현 자유시장연구소장,
전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연구실장



파독근로자의 국가 경제에의 기여

권혁철 | 현 자유시장연구소장, 전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연구실장

■ 발제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통계 수치를 통해 파독 근로자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보여주고자 함

■ 먼저, 1960년대 초반 당시의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파독 근로자의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① 세계최빈국

-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으로 세계 최빈국
- 당시 아시아 국가들 (1965년 기준): 한국 107달러, 대만 200달러, 태국 113달러, 필리핀 237달러
- 미국의 무상원조로 연명하는 나라: 매년 미국으로부터 2억 달러~3억 달러 이상의 무상원조를 받아 지탱되던 국가 재정

② 대량 실업

- 도시지역 공식 실업률은 16~17퍼센트
-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 농업 생산성은 거의 제로. 즉, 대부분의 농업 종사자는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
-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실업 상태

③ 경제 성장을 통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 국가적 과제

- 성장에는 자본의 확보가 필수, 그러나 국내 저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외화의 확보는 중대한 사안
- 미국 및 여타 서방국가들의 외면: “쿠데타 정권”
- 서독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통한 외화 송금 및 그에 이은 차관 제공은 외화 자본 확보에 중차대한 기여

■ 경제 성장에의 기여

<표 1> 1960~1970년대 파독 간호사 광부 현황

업종 (기간)	광부 (1963~1977)	간호사 (1965~1976)	기타 기능공 (1970년대)	합계
인원	7,936명	10,032명	931명	18,899명

- 1963년 12월 제1진 247명을 비롯해 1977년까지 광부로 7,936명 파견, 1965년부터 1976년까지 간호사 약 1만여명 등 총 2만여명이 서독에 근로자로 파견

<표 2> 총수출액 대비 파독 근로자의 외화송금액 (단위: 천 달러)

연도	총수출액	송금액	총수출액 대비 송금액 비중
1965	175,082	2,734	1.6%
1966	250,334	4,779	1.9%
1967	320,229	5,791	1.8%
합계	745,645	13,304	1.78%

- 1965년 273만4천 달러부터 1967년 579만1천 달러까지 3년간 총 1,300만 달러 이상을 국내로 송금함
- 이 외화송금액을 대한민국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총수출액과 비교해 보면, 외화송금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1.8퍼센트에 달함
- 물품의 수출로 벌어들인 것에는 원료 및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한 외화가득률을 함께 넣어 계산하면, 송금액의 규모는 원래의 금액보다 약 1.5배 내지 2배로 평가됨. 이 경우, 총수출액 대비 외화송금액의 규모는 약 3퍼센트에 달함

<표 3> GNP 대비 파독근로자 송금액

(단위: 천 달러)

연도	GNP(불변가격)	파독근로자 송금액	GNP 대비 송금액 비중(%)
1964	2,900,000	112	0.003
1965	3,000,000	2,734	0.09
1966	3,700,000	4,779	0.12
1967	4,300,000	5,701	0.13
1968	5,200,000	2,147	0.04
1969	6,600,000	1,246	0.01
1970	7,800,000	3,338	0.04
1971	9,500,000	6,593	0.06
1972	10,700,000	8,311	0.07
1973	13,700,000	14,162	0.10
1974	19,200,000	24,479	0.12
1975	21,200,000	27,680	0.13
합계		101,372	

- 표에서 보면, GNP(국민총생산) 대비 송금액 비중이 커 보이지 않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그림이 보임
- 1960년 외환보유고는 2,3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수출 3,300만 달러, 수입 3억4,400만 달러로 적자이고, 적자의 대부분은 원조자금으로 충당하는 형편
-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천만 달러, 10년 간 총 1억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 예를 들어, 해외송금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65년 270만 달러의 송금액은 1960년 당시 외환보유고의 10퍼센트를 넘는 거액
- 이렇게 송금한 자금이 아래에서 보듯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함

<표 4> 파독 근로자의 송금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연도	경상가격 GNP (A, 원)	경상가격 송금액 (B, 원)	불변가격 GNP증가액 (C, 원)	불변가격 송금증가액 (D, 원)	B/A (GNP에 대한 기여도, %)	D/C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
1965년	8057억	45억	2134억	231억	0.6	12.2
1966년	1조370억	155억	4934억	520억	1.5	11.8
1967년	1조2812억	310억	299억	380억	2.4	15.1

-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독 근로자의 송금이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65년 12.2퍼센트, 1966년 11.8퍼센트, 그리고 1967년에는 무려 15.1퍼센트에 달함

■ 결론: 파독 근로자의 국가 경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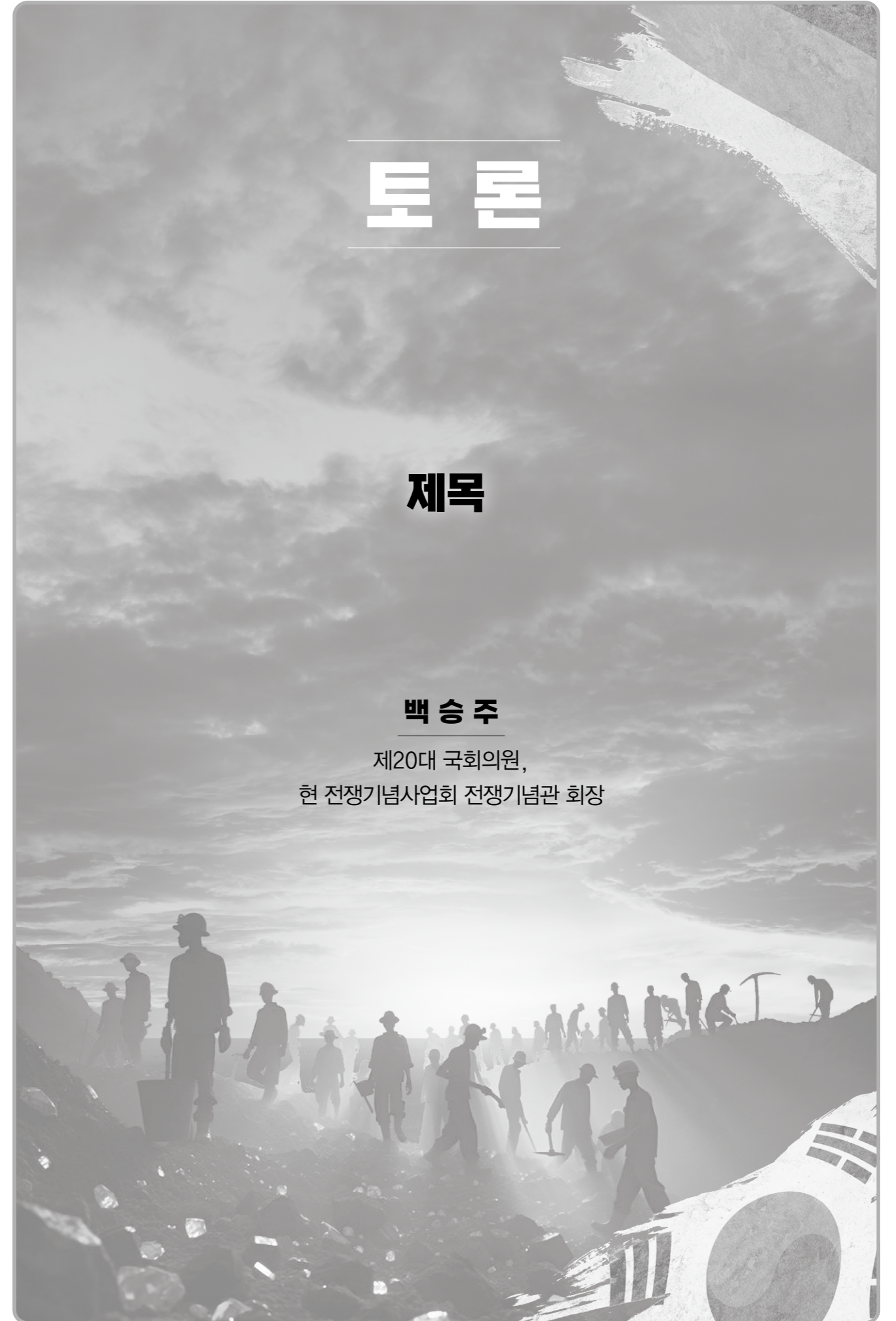
-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1960년대 중후반 자신들의 송금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10퍼센트 이상의 기여를 했음
- 이를 통해 파독 근로자는 국내 실업문제 완화, 고용 창출, 외환보유고 증가, 국제수지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
- 이런 성과는 서방 국가들의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보에 영향, 이후 차관 제공에 우호적인 영향을 줌
- 또한 파독의 성공은 이어지는 베트남 특수와 1970년대의 중동 특수 등으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기도 함
- 백영훈 박사: “서독 광부, 서독 간호사 파견은...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토론

제목

백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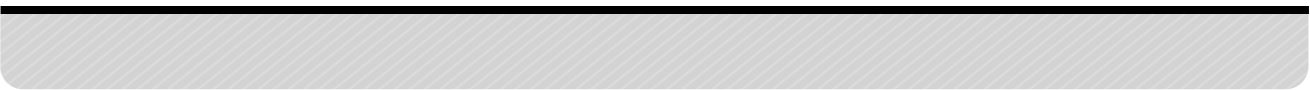
제20대 국회의원,
현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회장





MEMO

Lined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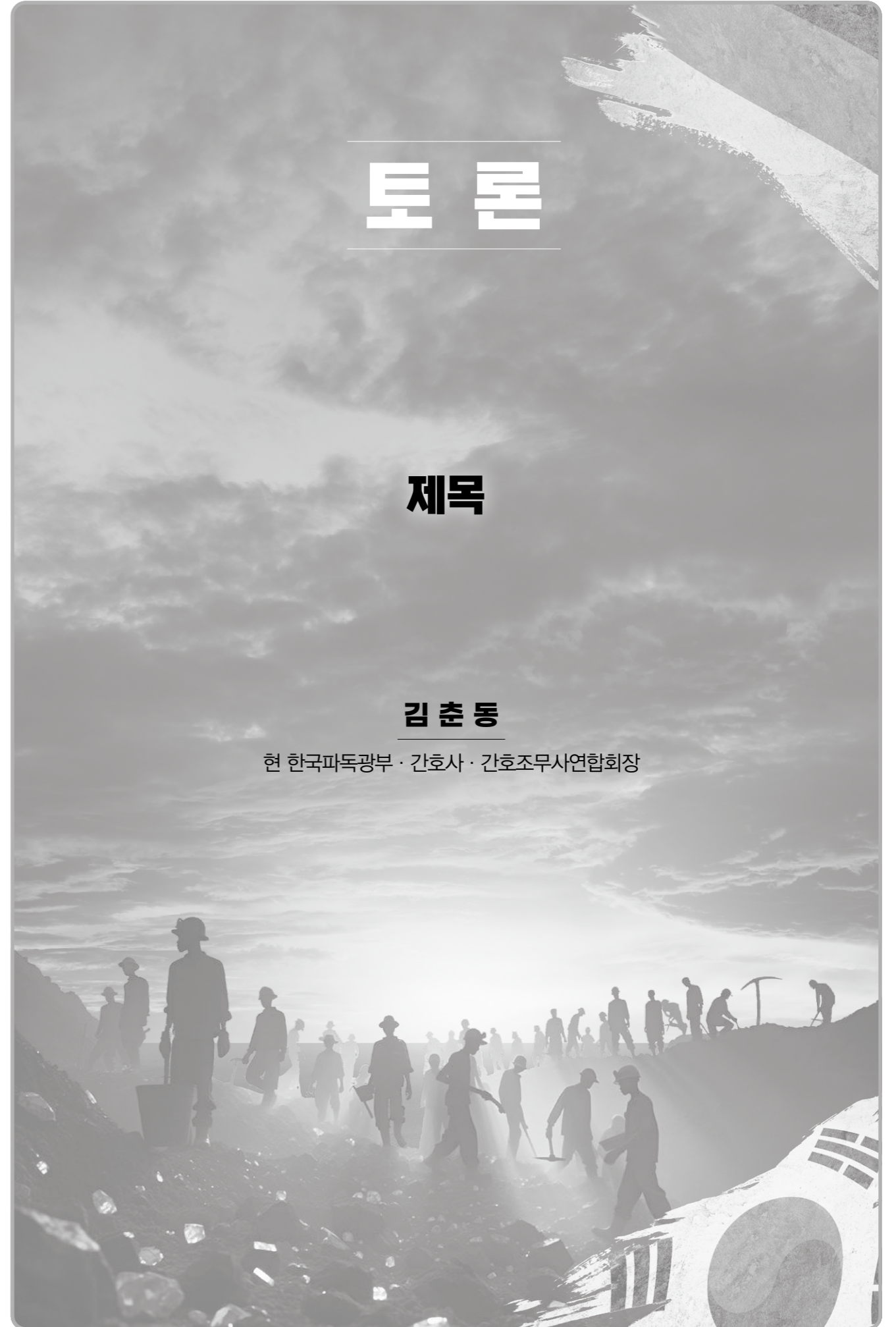
Lined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토론

제목

김춘동

현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회장 김춘동입니다.

바쁘신데도 머나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국 각양 각지에서 한국파독연합회의 정책세미나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경제력은 북한보다 못 하였고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곧 망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은 희망이 없는지라 국내 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무시당하는 나라였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에디오피아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60년 전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국가가 되었으며 그 결과 단군 이래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시작은 무엇때문이므로 세계 십대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를 거의 모르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60년 역사의 세월의 뒤안길에서 노년의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계시는 2만여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은 그 치열했던 격동의 세월.. 빠져린 현장 지하 1000미터 지하 막장에서 몸부림친 삶의 현장에서, 독일 전국에 흩어진 병원 에서 굳건히 견디어내며 마치 파편과도 같았던 아픈 기억들을 진솔한 삶의 진실로 싸매고 위로받고 싶어서 감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독광부·간호사들은 참으로 배고팠던 1960년 초 가난과 기아 선상에서 인생고를 해결하고자 한국정부와 독일 정부와의 기술원조 협정체결을 통하여 대한의 청년들은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 자식을 위로하고 2억만리 독일로 갔고 지하 1500미터 캄캄한 막장에서 공기도 희박하고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 때문에 땀과 눈물 피를 토하면서도 고향이 그리고 처자식이 그리워도 외화를 보내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우리 2~30대의 젊은 청년들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막장에서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참으로 무섭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한국과 서독의 경제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지하 1500미터 막장의 현장에서 고국에 외화를 보낸다는 사명감 때문에 몸이 아파도,조국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역사의소명으로 알고 피를 토하면서 목숨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파독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독일 전국에 흩어진 병원의 독일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였는데 환자들의 아픔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정성껏 간호하는 헌신적인 활동이 모든 서독 국민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독일신문 방송에서는 연일 극찬하였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신기한 천사들이 있느냐 동양에서 온 천사들이라고 극찬하였지만,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고향이 그리고 부모형제가 그리웠습니다. 그럴때마다 이미자의 노래 동백아가씨 노래를 부르며 위안을 달렸고, 우리 파독광부간호사들은 고국에 소중한 외화를 열심히 모아 보냈습니다.

고국에선 한푼 두푼 보낸 외화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포항제철 및 중화학공업에 투자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이룬 역사의 증인들이었고 영웅들이었지만 60년이 지난 지금은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은 국가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부들은 1963년 12월 21일 제1차 제1진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나 3년 광산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에 정착하였으나 그 중 9명 만 생존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고인되신 분 중에 상당한 숫자가 독일광산에서만 근무하였다는 조건 때문에 제대로 치료 한번 못받고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다행이 작년 10월 4일 워커힐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최초로 파독근로자들만을 위한 행사에서 대통령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을 꽃피운 그대에게”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 앞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감사드리고 모실 차례이며 어려운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저희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은 국내외 파독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보듬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큰 위안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① 지난 2020년 국회는 파독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기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파독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자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에 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② 지하 1500미터에서 마신 돌가루 탄가루 먼지에 노출돼 진폐 규폐 청각장애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고생하여도 똑같은 환자이면서 독일광산에서만 근무하였다는 조건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 현재의 산재보험의 실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독일광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거부당하고 있어서,

너무나 서글프고 분노가 치밀니다.

우리들의 영웅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분 한분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미 노령으로 평균 나이 80세 이상에서 85세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22년 6월에 (1) 생활비지원 (2) 의료비지원 (3) 주거 복지 부문을 국회환경노동분과 위원회에 상정시켰지만 심의 조차 못하고 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 파독근로자의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연예인 정치인 등을 상징하는 수 십억 수백억을 들여 건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 5월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에 파독근로자 기념관과 파독연합회를 창설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업무 중에 있습니다.

독일정부의 도움으로 독일광산에서 사용한 유물과 독일 병원에서 사용한 재료를 보내주어 전시하고 있으나 전시된 유물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전시실이 지난 정부 때 축소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 압축경제성장을 이룬 그 원동력인 주인공들의 기념관을 찾고 있습니다.

독일의 관광객과 외국인들은 파독근로자기념관을 관람한 후 대실망합니다. 파독기념관이 20평도 채 안되며 지하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진대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이룬 우리들의 업적을 보전하고 전달하여 후세들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대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은 잊지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영웅들은 한분 한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파독연합회는 후속인원 총원이 중단된 독특한 조직입니다.

곧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내부의 활력이 떨어지고 장차 후대의 기억 속에 서만 존재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후대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단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가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은 어찌하여 이들의 영혼들을 위로해주지 않나요.

파독광부들은 지하 막장에서만 죽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익사 자살 등 여러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주독 한국대사와 노무관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고 관련한 노동근로자의 파견이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서 잊지 못할 크나큰 족적을 남긴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었건만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희생된 피

의 댓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독 근로자들은 매우 외롭고 슬픕니다.

울분도 분노도 삭여지지 않아서 폭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다 무시하더라도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은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왜 어찌하여 이들의 영혼을 위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유랑하며 불평없이 기다렸는데 이제는 돌아와 영혼이라도 조국의 품에 안기라고 왜 말하지 않나요.

갈망하는 명찰 산업유공자라는 이름 줄 하나 달아줄 아량이 조국에 없는가요?

이제는 모두가 고향을 넘긴지 오래.... 무덤이 지척인데 왜 어찌하여 이들의 영혼을 받아줄 한 줌의 흙도 조국은 허락하지 않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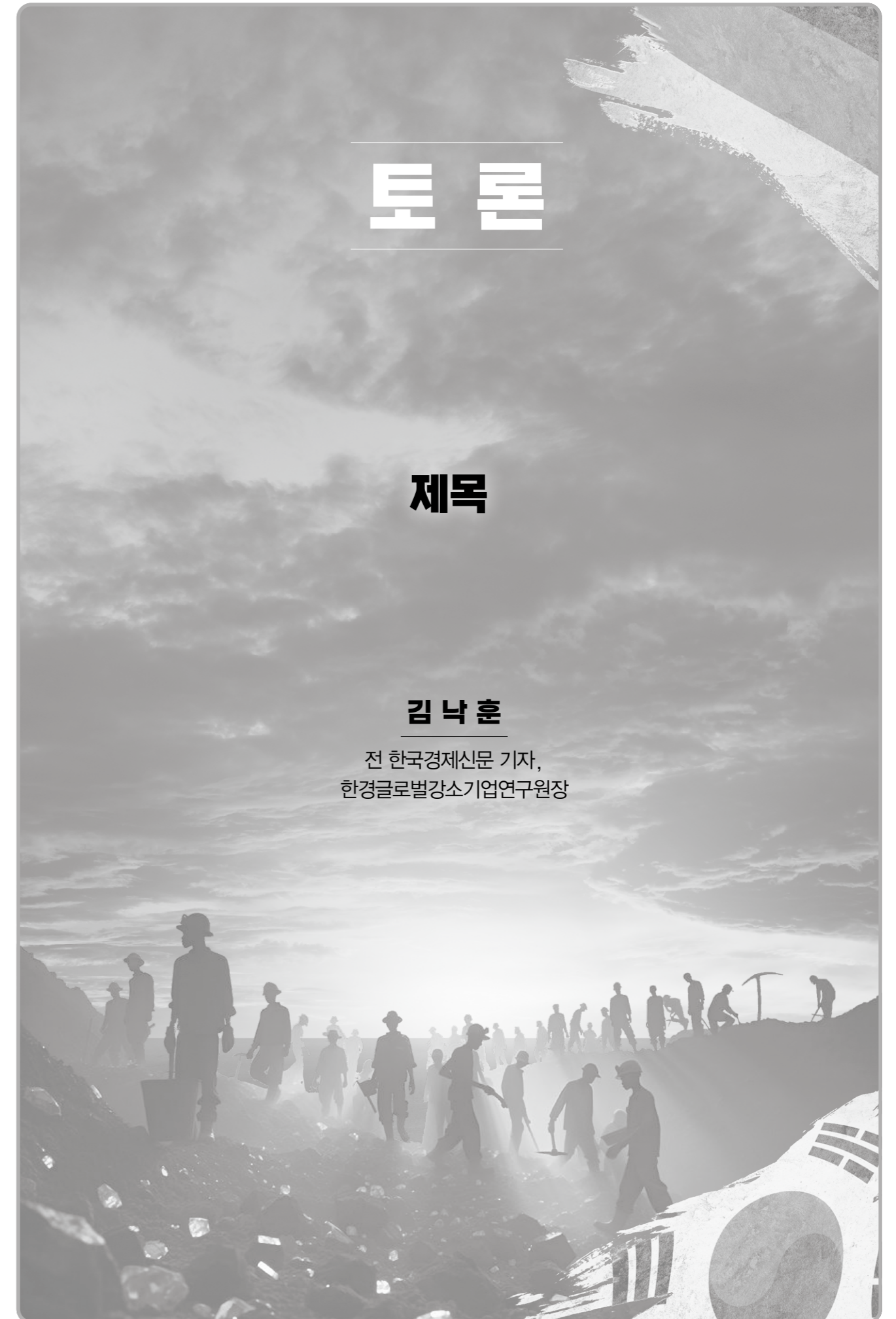
그런 것 인가요 ?

정말 정녕 그럴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안타깝지만, 초라하지만, 정말 쓸쓸하지만 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겠습니다.

구천의 영혼들이여 돌아오소서

다 돌아 오셔서 고국 산천에서 편히 잠드소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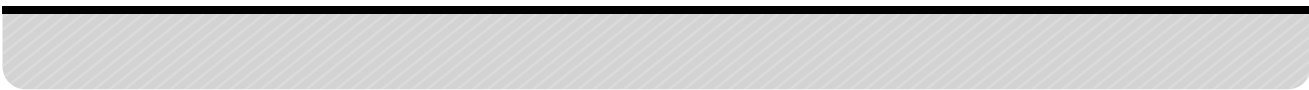


토론

제목

김낙훈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경글로벌강소기업연구원장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on page 84.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on page 85.